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 예배순서

인도: 가족중 어른

- 목도 . . . . . 다함께
- 성시 . . . . . 시편1편 1~6절 . . . . . 인도자
- 찬송 . . . . . 98장 . . . . .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 . . . 가족중(또는 다함께)
- 성경봉독 . . . . . 출애굽기20 : 3~6 . . . . . 인도자
- 말씀 . . . . . “제 2 계명” . . . . . 인도자
- 찬송 . . . . . 433장 . . . . . 다함께
- 주기도 . . . . . 다함께

### 본문 말씀

(개역개정판 출애굽기 20 : 3~6)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제 2 계명

### I.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나무를 갖고 빨감, 떡 굽는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몰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서 보이는 것을 세워 그것을 신으로 대체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에게 물렸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 보는 자는 치유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민21:6-9) 그러나 모세가 명령했을 때 일부러 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향해 백성들이 분향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를 느후스단(矢조각)이라 하고 깨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구리뱀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상징물로 세워졌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놓았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 II. 오늘날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

첫째로 수단을 목적으로 바꿀 때 우상이 됩니다. 예배의식이 목적이 되는 경우나 교회조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 그 예배의식과 교회조직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길 때 우상이 됩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일뿐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피조물에는 나도 포함되어 조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와 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기술(기계) · 황금(물질) · 쾌락 · 자기우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입니다.

### III. 왜 우리는 제2계명을 지켜야 하나?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숭배와 미신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감정적 질투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엘카나)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보상(보복)주의 율법이 아니고 은혜율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대립시켜 사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민족적으로 안타까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영어예배 시작되다

##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온 영어예배가 오늘 11시20분에 시작된다. 교회는 영어예배부(부장 이완형 장로)를 신설하고 Kinsler 목사를 영어예배 담당목사로 정하여 수개월간 준비 작업을 하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영어예배는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며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 김문영 집사)가 찬양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영어예배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4면으로 발행되던 주보가 오늘부터 6면으로 증편하여 발행되었다.

앞으로 영어예배가 뿌리를 내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천국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 농어촌 100교회 운동 운영방법 변경

서울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매년 100여교회 이상의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개교회가 지원하던 농어촌 교회 지원을 중단하고 노회대 노회 차원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교회는 현재의 모든 결연관계를 취소하고 총회의 원칙을 따라 진행하

기로 결정하였다.(단, 기관, 단체, 군인교회, 개인이 지정 후원하는 타교단의 교회는 기존대로 지원함)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서는 약속현금을 계속 바침으로 한교회당 최소 100만원(자녀수에 추가 됨) 지원을 함으로 농촌교회 평준화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온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0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 13일(주)찬양예배시간에 장학금 수여

장학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는 교회규정 제5장 제20조(장학회)에 의거 급년 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급년 상반기 장학생들은 먼저 신앙이 독실하고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며 천국일꾼으로 사명감이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였으며 오는 13일(주) 찬양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받아야 한다.

이들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2005년 상반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정지혜(행당중2) 주은빈(진선여중3) 이나정(중1) 이성화(석촌중2) 김선혜(중1) 성기방(주몽중3)

**고등부:** 이옥동(주몽고2) 안재용(단배부고3) 최선애(청담고2) 손형린(고1) 우용준(고1) 이영지(경기여고2)

**대학부:** 박재원(한양대3) 김성신(성신여대3) 오은(상명대3)

**청년부:** 이승준(고려대3) 이승현(고려대4) 김복녀 권사 장학생: 손재영(장신대 신대원3) 이상 18명

천국일꾼 양성 - 에바다부 창립4주년을 맞이하며...

# 에바다부가 4살이 되었습니다

###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

지난 1월30일(주) 오후 2시 603호실에서 서울교회 에바다부 창립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에바다부가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울교회 담임목사님, 모든 교역자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동안 에바다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이 없었다면 에바다부 농인들은 소외되고 발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치런 축복받은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에다부 표어인 "세상에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자"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바다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예배를 통해 5명의 농인을 전도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은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창립예배를 맞은 에바다부에 떡과 과일을 보내주시는 권사님과 서로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에바다부 교사들의 봉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는 성장과 부흥을 위해 전도와 기도에 힘써서 창립 5주년에는 농인성도가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음의 파수꾼 12번째 배출한다

## 전도학교 12기 수료식: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전도학교 제 12기가 12주간의 계획된 훈련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에 수료식을 거행한다. 이번 12기는 총 10명이 등록하여 교육을 받아왔으며, 오늘 8명이 수료하게 된다. 제13기는 교회학교 교사, 남·녀 전도회 임원 및 교회 인근 교구의 교구일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은 2월 13일(주일)부터 매 주일 오후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802호에서 서명철 목사님을 강사로 12주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오늘 수료하는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준경, 이영기, 아등만, 백도환, 김현호, 정피연, 이상은, 이옥선

# 비전 2020 후원자의 밤

## 13일(주) 오후 6시 30분 만나홀에서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후원자와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들을 모시고 설명회와 식사를 함께하는 후원자의 밤을 개최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한편 2004년도 후원금을 완납한 성도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 -2004 후원금 완납 성도 명단-

- 1교구: 강은숙 김명빈(배방) 김일순 김정순 박두영 박상희 박경섭 박찬성 백도환 손영호(경은숙) 손혜민 신규철 안미경 오현수(서정원) 윤강로 이남호(여유기) 이우진 이진규 이훈 임충식(신진주) 광기숙 조명준 조영자 현기숙 홍순복 이인성
- 2교구: 강종심(전인화) 방계윤 유근중 이갑연 이등만 이용현 조미환 조향영 최만수 최영순
- 3교구: 김명옥 김선희 김은희 김형배 유영준 이경구 이순례 이은희(김현수) 이찬호 안찬희 정병무 최인수 하인선(남태순)
- 4교구: 김광태 김금순 김상태(김숙자) 김세희 김태기 김혜경 나연신 박민숙 박은숙 오영숙 황경희 이승희 조봉환 조효순 최영자 홍광숙
- 5교구: 김중근 소병덕 손재결 안광희 유우자 이관모 이광열 이남복 이영희 이운영 해경희 황선희
- 6교구: 노송정 서명조 서영세 유윤상(음희숙) 황보추자
- 7교구: 김진철 김영래 김재건 김점숙 박종민 문병근 윤운식 이영기
- 8교구: 강나훈 김복숙 김영정 박영숙 여현진 이영자 계오복
- 9교구: 오경수 이남철 이상애 이순녀 장명순 장정현(송옥혜) 최정숙 한종우(황노진)
- 10교구: 최중식 이복규 김태현 이영종 민순구 윤환오 이관규 홍계식 정현숙 이해선 진 돈
- 11교구: 이영조(이영자) 백영희 노영숙 김희원 김양숙 김혜영 박정선 이경희 김경희 신경순 노중환(이민화) 김현기(김윤기) 지혜영 노문환 원용규(박이선) 강희남
- 12교구: 이갑진 장 덕 임상현 최광범 김대용 윤정식 오형환(신동기) 오영숙 권운순 권현순 오광환 유인철 이등수 김윤실 주경자 김숙자 박우주 옥준용
- 13교구: 김도훈 함인호 박금실 조동환 한금수 유영복 김희자 손성실 천은식 장진환(양일선) 이태경 최금봉 최미정 최향봉
- 14교구: 정상달 최옥희

# 2005년 1월 새가족 명단 찬양예배 시간에

곽옥순 권희진 기호진 김경철 김기만 김길순 김길자 김덕규 김미애 김복희 김상철 김상진 김성규 김영미 김은숙 김원철 김원철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지영 김장환 김형상 김희정 남정숙 노영 노현수 류진화 문혜식 민소혜 박경애 박광일 박나진 박동수 박래경 박상준 박배진 박시현 박계연 박중환 박진현 박훈화 박희래 배드로 서수녀 손태현 송우근 송은경 신연경 신계규 안경모 안경호 안상원 안경호 안현아 양봉수 양수은 영혜영 오정화 오진숙 유희선 유승현 유의현 유재두 유지영 유송기 유혜경 윤동환 윤용규 이교은 이귀숙 이규영 이규광 이근형 이동원 이미숙 이민영 이민현 이상진 이선규 이선유 이병현 이승권 이영기 이영자 이요한 이요한 이우탁 이원용 이종렬 이준현 이지원 이종민 이 현 이형철 이혜원 임혜경 권서연 권혜연정남진 권승연 권영린 권유연 권유진 권유현 권유혜 권계식 권주혜 권준혜 권혜인 조영주 조은비 주지환 채다인 채인빈 채준석 최금숙 현윤영 허민 홍성민 홍새희 홍승일 홍혜원 홍자영 홍준기 홍정훈 홍하연 이상128명

천국일본 양성 - 영어예배를 시작하며

# 아더 킨슬러 Arthur W. Kinsler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더 킨슬러(Arthur W. Kinsler) 목사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영어예배가 시작된다. 영어예배를 담당하시는 아더 킨슬러(Arthur W. Kinsler) 목사님은 1934년 평양에서 태어난 분이다. 선교사이셨던 부친이 1928년에 오셨고 당시 약혼 중이던 아버지를 뒤따라 나오신 어머니께서 1930년 평양에서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킨슬러 목사님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킨슬러 목사님은 미국 워튼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린스턴 신학 대학에서 M. Div 과정을 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졸업 한국에서 목회를 하였고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한국 선교에 평생을 바친 분이다.

지난 해 안식년을 갖고 올해 우리교회에서 영어예배를 맡게 된 킨슬러 목사님은 지구촌 시대를 예견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종윤 목사님으로부터 영어예배를 의뢰 받고 1985년에 당시 이 목사님이 시무

하시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어예배를 개설하였고 뒤이어 여러 교회에서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우리교회의 김치세미나의 강사로 참여했던 킨슬러 목사님은 "김치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진정 앞서가는 교회이며 서울교회에서 영어예배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킨슬러 목사님은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한국에 방문 중인 외국인이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들이 한국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킨슬러 목사님은 영어예배의 첫 번 말씀으로 "Transfiguration"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찬양대는 "I'd rather have Jesus"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예배 후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별로 성경공부가 영어로 진행되고 교사들은 킨슬러 목사님으로부터 교사교육을 받은 후 이들을 가르치게 된다. 영어예배는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허 숙(편집부)

광야의 소리

# 모양이라도 버려야

전기섭 장로(12교구)



길거리나 공원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이 행인 앞에서 사주나 점을 보는 아이러니컬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에는 어김없이 '오늘의 운세/사주란이 등장하고 신문에 버젓이 'XX보살이라고 하며 운세를 가르쳐주겠다는 광고가 커다랗게 눈에 띈다.

결혼할 때는 궁합을 보아야 하고 이사할 때나 큰일을 시작할 때는 '길일'을 택해야 하며 묘지를 쓸 때는 명당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예수 없는 자들의 틀썩힌 실정이다.

머칠이 지나면 구정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토정비결을 보고 금년운세를 점치는 등의 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까?

우리의 가는 길을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며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였고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친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럴 듯하게 말할 하지만 꺼풀 벗기고 보면 이와 같이 어리석음과 모순에 가득 차 있다.

믿는 형제들이여~ 제발 운세나 토정비결이나 점등은 입에 오르지도 말지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지니 2005년에는 성령을 탄식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선교사 수련회를 다녀오신

#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영기 장로(선교위원장)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이종윤 목사와 장로4명 일행은 1월 26일 방글라데시 에 도착하였습니다.

27일 새벽 예배 후 이곳에서 행할 일들을 점검하고, 오전 10시 다카 인근지역 선교사역지인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작은 보트로 이동, 40여명의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탁아시설을 방문하여 유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였으며, 한국인 최초선교사인 정성규 선교사가 1973년부터 사역하던 헌두인 10여명과 어린이 8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후 조남혜 선교사의 무슬림을 위한 새 사역적인 빈민가에 100여명 어린이 보호하는 시설을 돌아보았는데 그곳은 합석 지붕으로 된 5~6평의 너무나도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어린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영어와 벵갈어로 부르는 유치



원생들의 찬송과 울동을 들으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27일~29일 3일간 방글라데시 한인선교사 수련회 "너 하나님의 사람아(디모데전서 6:11)" 주제로 현지 최대 신학교인 기독교신학교(C.C.T.B)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은 '제자의 도'란 제목으로 두 시간이 넘는 강의를 여섯차례 열강을 하면서 세속주의를 본받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고, 올바른 신지식을 통하여 상실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며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죽으면 산다'는 마음으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절히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교회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조남혜 선교사 파송식을 갖었고 방글라데시의 회교관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의 경험과 현지 실제 선교현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무슬림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선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일인 30일은 한인교회 오전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섯 번 부인하심을 제목으로 우리를 결코, 결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증거 하셨는데 이 역시 큰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31일은 오삼열 선교사의 안내로 10년째 한인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영광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배당 부지구입과 건물신축 사역을 오삼열 선교사와 조남혜 선교사에게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삼열 선교사는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교회 전수자 권사님이 바친 것입니다.

그 후 서울교회가 후원 중에 있는 바로이 목사를 만나 현지 한인선교사와의 협력선교 사역을 강력히 권면하고 예배당신축에 앞서 복음전도에 전념하고 헌신해줄 것을 권면하자 바로이 목사는 권면에 적극 동의하고 최선을 다해 자국 선교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송 교단은 서로 다르지만 동역하고 협력하여 한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한인선교사들을 생각해보며 저희들도 함께 주의 뜰 되신 서울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음과 세계선교를 위한 큰 사명감과 도전을 받는 여행이었습니다.



천국일꾼 양성 - 수련회를 다녀와서..

#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 김준성(중등부)

수련회 시작 일주일 전, 교회선생님께서 수련회에 참석할지를 물으시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서울교회에 아는 친구가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수련회에 가서 친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친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어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가셔도 '뭘하냐?'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가 짜여 지고, 중등부 선배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왠지 즐거운 수련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태훈 목사님께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설교를 하실 때, 나는 어땠는지를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난 지금까지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수련회 주제와 같이 크리스찬의 기본을 알아가



## 한민이(고등부)

이번 수련회는 Christian Basic 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세우는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공부 시간이 있었고, 그중 첫 번째 시간인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몸이 되어, 성전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일이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듯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통치권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 생각 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박지연(대학부)

2. 1~2. 3에 있었던 대학부 겨울 수련회, 임원으로 처음 임명되면서부터 겨울수련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두 달간 수련회를 준비하며 저에게 대학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임원들 모두가 수련회 준비로 각자의 할일과 약속을 뒤로 미룬 채 열심을 내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대학부원들이 직장 휴가를 내거나 약속을 미루고, 직장에서 바로 수련회에 함께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와 우리나라로 범위를

넓혀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GBS(Group Bible Study)를 통해 "기도"의 실질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되지만 기도는 사단보다 무서운 나와 싸우는 무기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련회의 시간 속에서 젊은 이때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헌신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부는 20~26세까지 모인 젊은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젊은 이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학부의 서명철 목사님과 손재영 선생님, 그리고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대학부를 격려하기 위해 수련회장으로 달려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과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신 이종운 목사님. 이분들의 섬김과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대학부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젊은 청년들의 믿음과 결단, 헌신과 섬김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대학부는 서울교회의 소망입니다.

## 동정

-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는 2월 3일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다.
- 이사: 정동학 집사 김복순 권사 가정(8교구) 중구 신당동 현대@8-602 T.2253-7804
- 개업: 한홍섭 집사, 조인숙 집사(12교구)"강남부동산" T.031-896-4321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 1801-1. 메트로플라자 107호
- 개인전: 이명아 집사(1교구)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L.A), 2월11일(금)-2월20일(주)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 여전도회(2월6일) 한나여전도회(2월13일)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TV  |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br>·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br>·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 라디오 |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br>·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 인터넷 |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br>· 중국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여, 민족적으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소서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거리